

■ 지금 여기 ■

## 시리아 위기와 난민문제

남 옥 정

### I. 세계에서 가장 큰 난민캠프, 시리아

시리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사태의 열쇠를 쥐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망명설, 암살설<sup>1)</sup>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리아 내부에 강건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기화된 시리아 사태로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무고한 시리아인들이다. 지금까지 최소 7만 명의 시리아인이 사망했고, 위험한 시리아를 벗어나 주변국가인 터키, 요르단, 이라크 등의 국경지대로 몰려든 시리아 이주민들의 수는 알려진 바로만 100만 명이 넘는다. 유엔난민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조사된 시리아 국경지대의 난민 수가 총 1,121,816명이며, 등록된 난민은 910,349명이다. 이중 터키에 258,200명, 레바논에 351,683명, 요르단에 346,577명의 시리아 난민이 있으며, 또한 211,467명의 시리아 난민이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집을 떠나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나선 시리아 국내 실향민들의 수만도 어렵잡아 150만 명에서 2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하였다.<sup>2)</sup> 하지만 실상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3월 10일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이 "시리아 내전이 끝나지 않는다면 올해 말에는

1) 조선일보, 시리아반군 “알아사드 대통령, 경호원에게 암살되다.”, 2013. 3. 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30/2013033000744.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3/30/2013033000744.html). (검색일: 2013년 5월 2일)

2) UNHCR, <http://www.unhcr.org>. (검색일: 2013년 3월 10일)

난민이 2~3배로 증가할 것"<sup>3)</sup>이라고 경고한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4월 초, 유엔난민기구는 국내 실향민의 수가 40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주변국으로 피난을 떠난 이주민의 수를 더한다면, 시리아는 전체 인구 2천250만 명 중, 4명당 1명이 피난민이 되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시리아의 한 인권감시단체가 지난 3월이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달이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발생한 사망자가 6천 명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이 있다.<sup>4)</sup> 현재 시리아는 안전한 곳이 없으며, 난민촌이나 쉼터 등 머물 곳을 찾지 못한 난민들은 그들이 원래 왔던 곳으로 -비록 불안정할지라도- 돌아가야 할지, 포화상태의 난민촌 주위에서 등록 순서가 오기를 기다려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여 있다.<sup>5)</sup>

## II. 시리아 사태 추이와 원인

시리아 사태는 2010년 튀니지의 자스민 혁명에서 영향을 받은 소규모 평화시위들로 시작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시리아의 청년 ‘하산 알리 아클레’의 시리아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분신자살과 이틀 뒤 2명의 쿠르드 혈통 군인이 살해당한 것에 대한 항의시위가 있는 뒤 같은 해 3월 시리아 남부의 ‘다리아(Derra)’<sup>6)</sup>에서 17세의 어린 학생 15명이 그들의 학교 벽에 “국민은 정권의 붕괴를 원한다.”<sup>7)</sup>는 낙서를 한 후, 경찰에게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시민

3) 연합뉴스, 유엔난민기구 “시리아 난민 연내 2~3배로 늘어날 것”, 2013. 3. 10.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3/10/0605000000AKR20130310080500009.HTML>.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4) 연합뉴스, “시리아국민 4명중 1명은피난민”, 2013. 4. 5.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05/0200000000AKR20130405146300009.HTML?from=search>.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5) UNHCR, 2013 UNHCR country operations profile - Syrian Arab Republic,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page?page=49e486a76&submit=GO>.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6) Derra(درعا)는 요르단 국경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시리아 남부의 오래된 아랍 도시이다.

7) “Al-Sha'b Yuriduna 'Isqat al-Nidaam”라고 적은 시리아 학생들의 낙서는,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의 시위대가 많이 사용하던 일반적인 구호였다.

봉기의 불이 당겨졌다.<sup>8)</sup> 정부군의 과잉대응으로 인해 점차 극으로 치닫게 된 것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원인을 종파 간 분쟁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권력투쟁의 대리전으로 보는 분석이 나오자, 주변 아랍국가나 서방국가의 개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알 아사드 가문은 시리아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쉬아파의 분파인 알라위파로, 다수의 주민이 순니 무슬림인 시리아를 40여 년간 장기 통치해 왔다. 이는 1963년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후 지금까지 비상사태 선언을 종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과도한 정부군의 진압행태를 비판하며 아사드의 퇴진을 요구하던 -다수가 순니파인- 시리아국민의 요구가 아사드에 의해 쉬아파의 집권에 불만을 품은 시리아 내 순니파의 집단적 행동으로 묘사되며 점차 시리아 사태는 종파 분쟁 양상으로 번졌다. 이는 곧 주변 아랍국가의 대(對)시리아 정책에 미치게 되었다.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아랍연맹은 알 아사드 정권의 퇴진 지지, 아랍연맹 회원국 지위 박탈 등으로 반 아사드 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시리아의 쉬아파를 돕고 있는 양상이다. 2005년 레바논 총리 라피크 하리리의 타살 배후에 시리아 정부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시리아를 비난해 왔던 사우디는 레바논에 주둔중인 시리아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며 시리아 정부를 압박하고 고립화시키는 노력을 지속해왔다.<sup>9)</sup> 한편 이란은 아사드 정권에게 무기와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각에 대비하여 시리아에 만 명 규모의 민병대를 지원하고 있다는 전황이 워싱턴포스트지 등에 지속적으로 기사화되고 있다.<sup>10)</sup> 더 큰 문제는 시리아 내전사태가 주변 아랍 국가들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22일부터

8) "Al-Thawrat al-Suriyah-'Asbaabuha wa tafsiiil lil 'Ahdath", Shaahid-naa, 2011. 5. 17. <http://www.viewours.com/news/syria/syrian-revolution/>. (검색일: 2013년 4월 25일).

9) Berti, Guzansky, "The syrian Crisis and the Saudi-Iranian Rivalry", Foreign Policy Research Institute, 2012. <https://www.fpri.org/articles/2012/10/syrian-crisis-and-saudi-iranian-rivalry>. (검색일: 2013년 4월 25일)

10) 2013. 2. 11 ,WP: Iran and Hezbollah build militia networks in Syria in event that Assad falls officials say, <http://new.elfagr.org/Detail.aspx?newsId=281504&secid=24&vid=2>. (검색일: 2012년 4월 26일)

이라크에서는 폭발테러로 인해 현재까지 1,000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누리 알 말리키 이라크 총리는 4월 27일 방송 연설에서 “종파 분쟁이 이라크로 다시 돌아 왔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시리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sup>11)</sup> 알리 알 무사위 이라크 총리실 대변인은 “(시리아)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라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지만, 시리아 사태는 이라크 쉬아파 정부와 순니파 야권의 대립구도를 심화시키고 있다.<sup>12)</sup> 한편, 이스라엘은 지난 5월 3일과 5일 시리아를 통해 레바논의 헤즈볼라에게 전달될 이란제 파데-110미사일을 타격했다.<sup>13)</sup> 이에 5월 25일 레바논 헤즈볼라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개입을 공식선언하였고,<sup>14)</sup> 남부 레바논에서 발표된 로켓 포탄이 이스라엘 지역으로 떨어지면서<sup>15)</sup> 지역분쟁 조짐이 심상치 않게 표면화되고 있다.

### III. 국제사회의 개입과 중동패러다임의 재편성

패트릭 클라우슨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연구소장은 시리아의 불안한 정세는 중동지역 전역이 깊이 연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째, 아사드의 밀접한 전략 파트너인 이란이 받는 영향, 둘째,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권력 점유와 중동 패권의 재편성, 셋째, 주변국들의 안정화 문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라는 것이다.<sup>16)</sup> 다시

11) 연합뉴스, “종파분쟁-시리아내전이 원인”, 2013. 4. 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27/0200000000AKR20130427061500070.HTML?from=search>.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12) 이미경, 이라크, 시리아 진흙탕 내전에 휘말리나-이라크 접경지역서 시리아군 48명, 이라크군 9명 피살,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306019016>.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13) 연합뉴스,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은 이란 향한 ‘경고메시지’”, 2013. 5. 7.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3년 5월 8일)

14) 동아일보, “헤즈볼라 ‘시리아내전 개입’선언”, 2013. 5. 27. <http://news.donga.com>. (검색일: 2013년 5월 29일)

15) 연합뉴스, “레바논서 이스라엘로 로켓포탄 발사”, 2013. 5. 27.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3년 5월 29일)

16) Clawson, Patrick, “Post-Asad Syria: Opportunity or Quagmire?”, *Strategic Forum*, 276(2012), 3.

말하자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시한 사우디, 카타르, 터키와 같은 아랍 동맹국들 대 이란, 이라크와 러시아, 중국의 친 시리아 진영으로 대립되는 중동 지역 패러다임의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불안정한 상황의 확대가 큰 문제로 다가왔다.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오랜 숙원관계이다. 시리아는 1945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로 반 이스라엘 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며, 이스라엘은 1967년 6일 전쟁시 불법 점령한 시리아의 골란고원을 자국영토에 편입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반 이스라엘 정책을 추구하는 시리아 정부를 비난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터키는 시리아에 순니 정권의 수립을 지지하며 시리아 반군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시리아 정부는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중국과 긴밀한 국제공조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시리아 무력개입에 반대’의 입장<sup>17)</sup>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시리아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현 정권을 비호해 온 러시아 정부 또한 유엔의 대 시리아 결의안을 거부해 왔다.<sup>18)</sup> 또한 같은 쉬아 정권인 이란과 이라크는 직간접적으로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란에게 있어서 시리아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항할 최전선이다. 아사드 정권 붕괴 시 두 번째 방어 전선은 하마스나 헤즈볼라이다. 워싱턴은 매년 테헤란으로부터 헤즈볼라가 1억 달러 상당의 무기와 원조를 받고 있으며, 이는 시리아를 통해 수송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시리아 국경이 닫히게 되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항할 대리인을 잃게 되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지역기반인 시리아가 시나리오대로 권력교체가 진행된다면, 결국 이란-시리아-헤즈볼라 축이 붕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sup>19)</sup> 그동안 나토와 서방세계는

17) 연합뉴스, “중국, 화학무기 사용 단호히 반대”, 2013. 4. 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26/0200000000A KR20130426166100083.HTML?input=1179m>.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18) 연합뉴스, “아랍권, 시리아 새 유엔결의 추진”, 2013. 5. 10. <http://www.yonhapnews.co.kr>. (검색일: 2013년 5월 27일)

19) Abdo, Geneive, “How Iran Keeps Assa in Power in Syria”, Foreign Affairs, th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Aug, 25, 2011, <http://www.foreignaffairs.com/articles/68230/geneive-abdo/how-iran-keeps-assad-in-power-in-syria>. (검색일: 2013년 5월 2일)

리비아 사태에 비교적 즉각 개입했던 것과 달리 시리아의 사태에는 선봉리 군사 개입하지 않고 있었다. 시리아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잠재적 화학무기인 사린가스를 사용한다는 보고서가 힘을 얻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6일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배치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시리아 문제에 대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sup>20)</sup> 하지만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가 “아사드 정권을 해체시키겠다는 미국의 선언은 아사드 정권과 반군과의 잔혹한 유혈 사태를 야기 시켰다.”<sup>21)</sup>라고 분석한 점은 매우 흥미롭다. 제프리 삭스 교수는 “미국은 국제적으로 정권교체와 해체 과정에 관여하고 있다”면서, 사실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이 아니라 아사드 정권을 비호하고 있는 이란이며, 미국이 아사드 정권을 해체 시키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시리아와 레바논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한국일보와의 특별시론에서 밝혔다.<sup>22)</sup> 즉, 시리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이란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의 교전을 중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물리적 개입이 필요함에 앞서, 이 사태를 유발한 심각한 개입이 이미 있었다. 포스트 아사드 시리아의 미래는 봄을 지나 안개가 자욱한 암울한 구간에 들어섰다.

#### IV. 난민문제가 논의가 빠진 시리아 문제

시리아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시리아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인도적 차원의 논의가 더욱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인도적 고려가 앞섰다면 시리아 사태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리아는 고도(古都)를 간직한 세계사적으로 중요하고 아름다운

20) 연합뉴스,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용납 못해”, 2013. 4. 27,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27/0200000000A KR20130427003900079.HTML?from=search>.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21) 한국일보, “북한과 대화해야 하는 이유”, 2013. 5. 2, <http://news.hankooki.com/lpage/opinion/201305/h20130501210101112020.htm>. (검색일: 2013년 5월 2일)

22) *Ibid.*

곳이다. 지금은 교전 끝에 발생한 희생자들의 주검과 집과 가족을 잃고 난민촌을 찾아 길을 나선 시리아 난민들의 울음만이 거리에 가득하다. 시리아 난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호와 지원이다. 시리아 상황이 악화되어 갈수록 살인, 납치, 폭력과 공격, 성폭행 등의 잔혹범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이다.<sup>23)</sup> 아직까지는 시리아 주변국에서 국경이 잠깐씩 열릴 때마다 몰려드는 시리아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요르단 국경의 자타리 난민촌의 경우 다른 곳에 비해 사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포화상태가 극에 달하였다. 결국 요르단은 시리아 난민에게 국경을 개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U는 난민을 받아들이는 대신 시리아와 시리아 난민을 수용한 인근 국가에 대해 2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데 이어, 6천500만유로의 추가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sup>24)</sup> 한국 난민인권센터가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난민지위 심사 신청자 수가 지난해 1,143명으로 1993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을 시행한 이래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이 중에는 시리아 난민 146명이 포함되어 있다.<sup>25)</sup> 하지만 시리아 난민 신청자중 한국에서 받아들여진 난민신청자는 없다.

한국이 시리아 난민지원자를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아니라는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식이라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시리아 내전의 최대 피해자는 민간인들이 대부분인 난민들, 그 중에서도 아이들이다. 한 가슴 아픈 소년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압둘 라흐만은 12살이 된 축구를 좋아하는 소년이다. 프로축구선수를 꿈꾸던 소년은 집 주위에 떨어진 폭탄공격으로 한쪽 다리를 잃었다. 그날 이후 알리는 꿈도 함께 잃었다.<sup>26)</sup> 현재 시리아에서 구호활동을 벌이고 있는 펜로즈

23) UNHCR, 2013 UNHCR country operations profile - Syrian Arab Republic, <http://www.unhcr.org/cgi-bin/texis/vtx/page?page=49e486a76&submit=GO>.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24) 연합뉴스, “EU, 시리아에 6,500만유로 추가 인도적 지원”, 2013. 5.12, <http://yonhapnews.co.kr>. (검색일: 2013년 5월 29일)

25) YTN, “지난해 한국난민 신청 외국인 역대 최다”, 2013. 2. 1. (검색일: 2013년 4월 27일)

26) CNN arabic, “Abdu al-Rahman, saraqqa saqqiha wa saraqqa hulumuhu.”, 2012. 11. 12, <http://cnnarabic.com>. (검색일: 2012년 3월 3일)

세이브더칠드런 구호국장은 시리아의 한 세대가 총체적으로 내상을 입고 미래로 나갈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sup>27)</sup> 시리아 문제는 정치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입은 내상을 보살피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서 더 심각하게 주목해야 한다.

단국대학교 GCC 연구소, happy2oj@hanmail.net

---

27) 경향신문, “시리아 한 세대가 총체적 내상”, 2013.5. 26. <http://news.khan.co.kr>. (검색일: 2013년 5월 29일)